

지역 소식통

정읍 귀농귀촌학교 수료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정읍 시귀농귀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0년 하반기 정읍시 귀농귀촌학교 수료식이 지난 20일 열렸다.

수료식은 교육생 29명과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귀농·귀촌 지원센터 이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토현권역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됐다.

하반기 귀농·귀촌학교는 지난 11월 3일 개강해 총 49회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면서 평일 합숙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체계적인 농업 교육과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마련된 귀농·귀촌 학교에서 29명의 교육생 모두가 전 과정을 이수하고 100시간의 교육 인정 수료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교육생들이 뽑은 우수성과 공모상, 모범상 이사장상 등 4개 부문의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정읍=김대환 기자

'높을고창물' 사업설명회 농가들 참여 열기 '후끈'

'한반도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의 명품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높을고창물'이 지역 농가들의 열띤 참여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높을고창물 입점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높을고창물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소규모 입점을 희망하는 농가들의 수요를 예측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온라인 통합소평을 전반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시사각각으로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 경향 등이 발표돼 참여 농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고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소비자의 비대면 소비 실리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높을고창물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에서 제안된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에 차별화를 두고 농가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온라인 소평물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 상권 활성화 '앞장'

정읍시, 코로나 속 지역 소상공인 든든한 버팀목 역할 특례보증 융자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경영안정 도모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며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등이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별 최대 3천만 원까지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는 대출금리의 연 2.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씩 연 12만원(최대 12회)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했다. 공공요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2020년 1월부터 3월 사업장을 운영하고 휴·폐업을 하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이다.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 등은 제외되며, 월 20만원 씩 3개월분 총 6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923개소 28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추진 중이며 2,068개소 6억2,700만원이 지원됐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는 전년도(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사업체별 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며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부안 변산면,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부안군 변산면은 주거취약계층 3세대에게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변산면 사계관리대상자로 오래된 낡은 집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다.

특히 이번 지원대상자 중 한명은 차

상위계층이며, 자녀들이 모두 멀리 살고 있는데 주방 사시문에서 유리가 탈락되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로 사시문 교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 어르신은 "낡은 집을 수리해주서

고맙다"며 마음을 전했으며, "20년 된 싱크대를 교체하니 새집에 사는 것 같다"며 기쁜 마음을 표현하였다.

박현선 변산면장은 "혹한기가 다가오는데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설명회

정읍시가 23개 읍면동 7개 농협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의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실현하는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 약정 농업인 중 시장

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 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시는 양파와 마늘 2개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11일까지 해당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등락 폭이 심한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인의 애국·애족정신 조명

27일 '부안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 주제 학술대회

27일 오후 1시 30분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부안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이 주최하고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전북대학교 이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근대사의 분수령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동학농민혁명이 대한제국기 의병전쟁과 일본강점기 독립운동의 뿌리임을 밝히는 것으로 근대 부안의 민족운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대학교 홍영기 교수가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홍 교수는 강연에서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은 물론 국권 침탈기였던 대한제국기에 일어난 의병활동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나선 부안인의 애국·애족정신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제 주제는 순천대학교 성주현 교수가 '홍재일기를 통해 본 부안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발표한다.

홍재일기는 동학농민혁명 이전부터 부안에서 거주하던 기행원이 동학농민혁명을 전후로 40여 년에 걸쳐 쓴 일기다.

따라서 홍재일기에는 동학농민혁명은 물론 국권침탈기 의병들의 활약도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특히 기행원은 그 당시 집권층과 일반이 표현한 '폭도'가 아니라 '의병(義兵)'이라고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기행원의 시국관을 볼 수 있다.

이어 '부안의 의병전쟁 연구 현황과 과제', '부안의 독립운동 연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주대학교 김진우 교수와 군산대학교 임혜영 교수가 발표한다. 이를 통해 그간 미진했던 부안의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기념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전북대학교 윤상원 교수가 '부안의 민족운동 정립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는 향후 부안인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민족운동의 큰 틀을 정립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마지막으로 전주대학교 홍성덕 교수가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아 발표자와 토론자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치유문화도시 고창 만들기 '머리 맞대'

고창군민 제2차 원탁토론회

청소년 직장인 육아맘, 다문화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고창군민들이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르네상스웨딩홀에서 '고창문화유산에서 발견하는 치유의 정신'을 주제로 2020 제2차 고창군민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60여명의 남녀노소 고창군민이 참여해 고창의 인문·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치유문화콘텐츠 발굴 등에 대한 핵심적인 생각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고창의 인문·역사·예술자원을 통해 치유 받았던 사례 발표 등 ▲지역 생태·환경·마을 공동체 등의 문화자원을 통해 고창민의 차별화된 치유문화 콘텐츠 방안 등에 대해 3시간 가량 집중 토론을 벌였다.

군은 퍼실리테이터(회의촉진자)를 참여시키고, 현장에서 참석자 의견을 바로 취합·분석·분류해 실시간 결과를 공개하는 등 토론의 집중도를 높였다.



지난 20일 오후 르네상스웨딩홀에서 2020 제2차 고창군민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고창은 선운산, 운곡담사르스지, 고창읍성 맹종죽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 명상 힐링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상하농원 동물교과 체험, 동호해수욕장 모래찜질, 석정온천 스파 등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명소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산, 들, 강, 바다는 오랜 집콕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활력을 되찾기에 최적의 장소다"며 "우울한 마음을 긍정적 에너지로 채워갈 수 있는 지역민의 차별화된 치유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